



위험 인식과 분노의 상호작용이 흡연 규제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이선영 한림대학교 인터랙션디자인 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위험의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결합해 건강 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의 연구들은 위험의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위험의 인지적 측면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위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뿐 아니라 감정적 평가를 함께 고려할 때 위험과 관련된 의사 결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강조하는 메시지에 의해 유발된 위험 인식과 흡연 규제 정책 지지 행위와의 관계가 분노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위험 인식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가 흡연 유무나 분노의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탐색해 보았다. 성인 남성 3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위험 인식이 흡연 규제 정책 지지 행위에 미치는 효과가 분노의 정도에 의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위험 인식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가 흡연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함의나 논의점이 본문에 제시되었다.

KEY WORDS 위험 메시지 • 간접흡연 • 감정적 반응 • 감정 주체 • 감정 대상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7807).

** sunyjune@gmail.com

1. 서론

간접흡연이란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6). 최근에는 간접적으로 담배 연기를 들며 마시는 경우에도 흡연자와 동일한 대부분의 질병을 앓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담배(연기)는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간접 살인마’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위험은 대중 매체를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면서 일반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위험과 관련된 걱정, 근심, 두려움 등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건강에 대한 위험이 감지되고, 관련 정보가 처리되고, 거기서 생겨난 감정은 건강과 관련된 행위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명순, 2009). 따라서 수용자가 보다 객관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위험과 관련된 감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위험 인식은 많은 건강 이론(예: 건강 신념 이론, 보호 동기 이론)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다루어 왔다. 이들 이론은 사람들이 건강에 해로운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건강과 관련된 행동이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험 인식과 건강 관련 행위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를 보여 왔다. 예를 들어,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연구들은 위험 인식과 건강 관련 행위 간에 관계가 매우 약한 것을 발견했으며, 다른 연구는 위험 인식과 건강 관련 행위 간에 부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Brewer, Chapman, Gibbons, Gerrard, McCaul, & Weinstein, 2007; Gerard, Gibbons, & Bushman, 1996; van der Pligt, 1998). 이러한 불일치된 연구 결과는 위험 인식과 건강 관련 행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는 인지적 측면의 위험과 감정으로서의 위험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Loewenstein & Lerner, 2002; Lerner, Gonzalez, Small, & Fischhoff, 2003), 인지적 측면의 위험과 감정적 측면의 위험이 함께 작용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기존의 위험 연구는 위험을 인지적 측면에서 다루면서 분석으로서의 위험(risk as analysis)을 강조해 왔다(Slovic, Finucane, Peters, & MacGregor, 2004).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위험의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위험의 인지적 측면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위협에 대한 인지적 평가뿐 아니라 감정적 평가를 함께 고려할 때 위협과 관련된 의사 결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지된 위협과 감정이(예: 걱정, 두려움, 분노 등)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건강과 관련된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협의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결합해 건강 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간접흡연의 경우 타인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더라도 호흡기 관련 질환뿐 아니라 폐암을 비롯해 각종 암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흡연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통해 인지된 위협과 감정, 특히 분노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흡연 규제 정책 지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위협 인식과 감정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서, 위협 인식과 감정(예: 분노)이 어떻게 결합해서 흡연 규제 정책 지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협 메시지에 대한 흡연자의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감정적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건강 메시지 설계 뿐 아니라 흡연 관련 정책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문헌 연구

1) 위협 인식과 행위

위험 인식은 어떤 위해 대상이 신체적 및 정신적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Brewer et al., 2007). 위험 인식은 건강 신념 이론(Rosenstock, 1974), 보호 동기 이론(Rogers, 1975), 확장된 평행 처리 이론(Witte, 1992) 등 대부분의 건강 이론에서 주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들 이론들은 사람들이 건강에 해로운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건강을 해치는 태도나 행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 왔다. 다시 말해, 건강과 관련된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를 하도록 동기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위험 인식과 예방 행위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이와는 불일치된 결과를 보여 왔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연구들은 위험 인식과 건강 예방 행위 간에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으나, 이들 관계는 기대와는 달리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rewer et al., 2007), 몇몇 연구들은 위험 인식과 예방 행위 간에 부적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Gerard, et al., 1996; van der Pligt, 1998). 이러한 불일치된 연구 결과는 위험 인식과 건강 예방 행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위험 연구들은 사람들이 위험을 인지할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과의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oewenstein et al., 2001; Slovic et al., 2004). 이들 이론들은 인지적 측면의 위험과 감정으로서의 위험은 부분적으로 독립적이며,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인지적 측면의 위험과 감정적 측면의 위험이 함께 작용하면서 위험과 관련된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위험 관련 연구들은 주로 위험 인식이 태도나 행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으며, 실제로 위험 인식과 관련된 요인들이 위험 인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사람들의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의 인지적 측면과 감정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결합해 건강 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위험 인식과 감정

인지심리학에 기초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위험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분석으로서의 위험(risk as analysis)에 관한 연구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 인식할 때 확률 계산, 공식적 논리, 그리고 가능한 결과에 대한 평가와 같은 논리적이고 분석적 측면을 사용한다고 주장해 왔다(Slovic et al., 2004).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위험의 감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위험의 인지적 측면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효과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적 측면의 위험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이 위험을 인지할 때 위해성 결과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같은 결론론

적 측면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Fischhoff, Lichtenstein, Solvic, Derby, & Keeney, 1981; Peters & Solvic, 1996).

예를 들어, 슬로빅과 동료들은(Slovic et al., 2002, 2004) 감정 휴리스틱(affect heuristic)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위험성에 직면할 때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 인식할 때 좋음(goodness) 또는 나쁨(badness)과 같은 감정적 평가가 위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핵과 같은 기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위험이 높다는 정보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이 위험에 관한 인식의 정도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유사하게, 로웬스타인과 그의 동료들(Loewenstein et al., 2001)도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 판단할 때 감정에 의지한다는 근거로서 두려움(또는 걱정)과 위험 인식 간의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주면서 감정으로서의 위험(risk-as-feeling)에 대한 가설을 제시했다. 이 가설은 위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은 부분적으로는 두려움이나 걱정과 같은 감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람들이 확률과 기대되는 결과 등에 기초하여 인지적 측면에서 위험에 대해 평가할 때 감정적 결과 즉 두려움이나 걱정을 경험하게 되며, 위험과 관련된 행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설명한다.

이들 위험에 관한 이론들은 인지적 측면의 위험과 감정으로서의 위험은 서로 독립적일 수 있으며,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인지적 측면의 위험과 감정적 측면의 위험이 함께 작용하면서 위험과 관련된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몇몇 연구는 위험 인식이 건강 관련 행위에 미치는 효과가 감정, 특히 걱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다(Ferrer, Portnoy, & Klein, 2012; Moser, Mccaul, Peters, Nelson, & Marcus, 2007; Shim & You, 2015).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특정한 감정(예: 분노)이 위험 인식과 건강 관련 행위와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사실 분노라는 감정은 위험을 감지할 때 자주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다. 따라서 두려움이나 걱정뿐 아니라 다른 특정한 감정(예: 분노)이 어떻게 위험 인식과 결합해 건강 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분노와 행위

위험과 감정의 관계와 관련해 초기의 연구는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정/부적 감정의 역할에 대해 탐구했다. 예를 들어, 정적 감정이 위험에 대해 더 과대평가하게 하는 반면, 부적 감정은 더 과소평가하게 한다고 설명한다(Slovic et al., 2004).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정/부적 감정보다는 개별 감정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Lerner & Keltner, 2001, 2003). 즉, 특정한 감정은 위험이 가져다 줄 특정한 상황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해 평가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감정의 인지 평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ies of emotions)에 기초한 것인데, 이 감정 이론은 특정한 감정에 대한 경험은 특정한 평가나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특정한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Ellsworth, 1991; Lazarus, 1993; Roseman, 1984, 1996; Scherer, 1982, 1999; Smith & Ellsworth, 1985). 예를 들어, 사람들이 위험이 가져올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그 결과가 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두려움 또는 걱정을 경험하게 되는 반면, 분노는 위험으로 인한 결과가 확실하며 그 결과가 통제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감정은 특정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나 위험에 대해 경계하거나 조심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는 반면, 분노는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에 직접 맞서고자 하는 행동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Lerner & Keltner, 2001). 다시 말해, 사람들이 분노를 느낄 때 더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분노의 주범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고, 맞서 싸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며, 이러한 행동 경향성은 종종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행동을 유발한다고 설명한다(Frijia, 1986; Lazarus, 1991).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노는 행동을 이끌어 내는 활력제로 인식되어 왔다(Lazarus, 1991). 실제로 최근의 연구는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시위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항의 행위나 정책에 대한 지지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Jasper, 2014; Smith & Leiserowitz, 2014). 이들 연구는 분노가 위험 인식과 결합해서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 행위를 유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 현행 연구

간접흡연이란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16). 최근 세계보건기구 연구진이 전 세계 192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마다 약 60만 명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Öberg et al., 2011). 게다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계층은 여성과 아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흡연자라 하더라도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폐암을 비롯한 유방암, 부비동과 비인두의 암, 자궁경부암 등과 같은 각종 암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관상동맥 심질환의 위험성, 그리고 각종 호흡기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Bayer & Stuber, 2006). 이러한 인식은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서, 대부분의 간접흡연 광고의 메시지가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함으로써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렐리와 동료들(Farrelly, Niederdeppe, & Yarsevich, 2003)은 다양한 유형의 금연 광고를 분석하면서, 대부분의 간접흡연 광고의 메시지가 간접흡연에 대한 노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은 간접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위험에 대해 평가할 때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메시지를 통해 유발된 위험 인식과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흡연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1) 위험 인식, 분노, 그리고 흡연 규제 정책 지지 행위

일반적으로 분노는 자신이나 자신이 아끼는 사람의 권리나 이득 등이 침해를 당했다고 느낄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다(Izard, 1977; Lazarus, 1991). 또한 분노는 사건의 주체나 원인이 확실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더 강하게 유발된다(Ortony et al., 1988; Roseman, 1984, 1991; Scherer, 1999, 2001). 따라서 간접흡연이 ‘타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광고에 노출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사람의 건강이 타인의 담배 연기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판단은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간접흡연

의 경우 사건의 주체나 원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난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이는 더 강한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

더불어, 앞서 언급했듯이 자신이나 자신이 아끼는 사람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거나 누군가 자신이나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느낄 때 경험하게 되는 분노는 그 주체를 처벌하거나 또는 보복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질 수 있다(Batson et al., 2007; Haidt, 2003; Tangney, Stuewig, & Mashek, 2007). 따라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유발된 분노는 흡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러너와 동료들(Lerner et al., 2003)은 두려움과 분노가 테러와 관련한 정책 선호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분노가 두려움보다 국의 추방과 같은 보복적 정책에 대한 지지와 더 강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는 음주 운전에 대한 분노가 가해자에게 더 심한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행위인 보복적 정책에 대한 지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Nabi, 2003).

이들 연구에 기초해서 볼 때, 간접흡연이 '타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메시지에 노출된 후 경험하게 되는 인지적 위험이 분노와 결합해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 행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흡연 메시지에 노출된 후 경험하게 되는 인지적 위험이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분노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 연구가설 1: 위험 인식의 경우 흡연 규제 정책 지지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분노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 흡연 유무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위험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감정의 주체, 즉 감정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이냐가 감정 연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Iyer & Leach, 2008). 이 이론은 자기 범주화 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Turner et al., 1987)에 기초한 것인데, 이들은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자신을 개인이 아닌 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범주화하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생각하고 느

끼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대상(예: 흑인)에 대해 개인으로서 느끼는 감정과 미국인으로서 또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으로서 경험하는 감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Smith, Seger, & Mackie, 2007).

유사하게, 설득과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이슈에 대한 개인적 중요성 또는 관여도에 따라 태도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Johnson & Eagly, 1989; Petty & Casoppo, 1979). 예를 들어, 참여자에게 커피에 든 카페인이 여성에게 더 위험하다는 기사를 읽게 한 후 설득 효과를 측정한 결과, 커피를 마시는 여성이 커피를 덜 마시는 여성보다 기사에 대한 설득 효과가 더 낮았다고 보고했다(Kunda, 1987). 리버만과 차이킨(Liberman & Chaiken, 1992)은 피험자에게 커피가 섬유낭종성 질환과 관계가 있다는 위협 메시지에 노출시켰을 때,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보다 더 그 메시지에 설득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위협을 알리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자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나 간접흡연 문제의 경우, 흡연자나 또는 비흡연자나에 따라 간접흡연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협 인식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가설 2: 위협 인식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가 흡연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분노의 대상

더불어 최근의 연구는 감정을 경험하는 당사자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상에 대해 감정을 느끼는지를 구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Iyer & Leach, 2008).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평가할 때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감정을 느끼는 구체적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한 대상으로 인해 야기된 감정은 특정한 유형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Iyer & Leach, 2008; Parkinson, Fischer, & Manstead, 2005). 특히 분노의 경우, 분노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분노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의 결과에 대해 비난할 대상이 분명히 존재할 때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Smith & Ellsworth, 1985). 실제로 최근의 연구는 특정한 대상을 향한 분노가 특정한 행동 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

를 들어, 아이어 등(Iyer, Schmader, & Lickel, 2007)은 영국 학생들이 이라크전에 대한 분노와 행동 유형에 관해 조사하면서, 모두 세 가지 대상(영국 국민, 영국 정부, 미국 정부)에 대한 분노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영국 국민과 영국 정부에 대한 분노는 영국이 이라크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의지와 관련이 있었고, 미국 정부에 대한 분노는 이라크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느낄 때 경험하게 되는 분노에 대해 연구했다. 예를 들어, 호주인이 호주 원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느낄 때 분노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분노는 부당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다(Leach, Iyer, & Pedersen, 2006).

이들 연구에 기초해서 볼 때, 간접흡연의 경우 분노의 대상이 흡연자인지, 아니면 흡연을 규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나 담배 회사와 같은 조직을 향한 분노인지에 따라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 행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 연구가설 3: 위협 인식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가 분노의 대상에 따라 달리 나타날 것이다.

3.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본 조사의 대상은 20에서 40대의 남성들이며, 한 조사 설문 회사의 온라인 패널을 이용해 모집되었다. 설문 조사 대상에 20에서 40대 남성만을 포함시킨 이유는 본 연구의 목적이 흡연자가 간접흡연 메시지에 노출된 후 느끼는 위협 인식과 감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고, 또한 이들 연령대 남성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흡연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본 조사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은 설문 조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요청되었고, 연구 참여의 대가로 소정의 비용이 지급되었다. 온라인 설문 절차를 살

해보면, 먼저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한 설문 내용에 참가자들이 동의한 후 흡연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한 질문이 행해졌다. 간접흡연 광고에 대한 질문은, ‘간접흡연이 타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지를 물은 후,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경우 간접흡연이 타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광고를 본 후 메시지에 대한 위험 인식, 두려움과 분노의 정도, 그리고 금연 정책 지지 정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적 항목을 측정하였고 설문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32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간접흡연 광고를 접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14명의 참여자를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직업군으로 고루 분포되었으며, 평균 나이는 34.62세($SD = 8.08$)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33.7%, 30대가 32.0%, 40대가 34.3%의 비율을 보였고, 학력의 분포는 고졸이 19.9%, 대졸이 69.0%, 대졸 이상이 11.1%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은 1000만 원 미만인 13.1%, 1000~2000만 원 미만인 10.8%, 2000~3000만 원 미만인 19.0%, 3000~5000만 원 미만인 40.5%, 5000만 원 이상이 16.7%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19.9%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대도시가 66.0%, 중소도시가 33.0%, 그리고 농어촌이 1.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교는 무교가 59.2%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16.7%), 불교(15.7%), 천주교(8.2%), 그리고 기타(0.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변인 및 측정

(1) 인지된 위험 인식

간접흡연 메시지에 대한 인지된 위험은 참가자에게 간접흡연이 ‘타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광고를 본 후 어떻게 느꼈는지를 다음의 3개 항목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간접흡연의 해악성을 알려준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 알려준다’와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의 건강과 생명에도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 세 가지 항목은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alpha = .95, M = 5.47, SD = 1.25$).

(2) 분노

분노는 응답자에게 간접흡연이 타인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광고를 본 후 아래

의 감정을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지에 대해 물었다: '분노를 느낀다', '짜증이 난다', '경멸감을 느낀다'와 '화가 난다'의 네 가지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alpha = .92, M = 4.38, SD = 1.25$).

(3) 흡연 유무

응답자에게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다음의 항목을 통해 물었다: 1) 예, 2) 아니오, 3) 아니오. 하지만 피운 경험이 있다. 이들 항목은 후에 흡연자(= 0)와 비흡연자(= 1)의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사용되었다.

(4) 분노의 대상

분노의 대상은 참가자에게 간접 광고를 본 후 분노를 느낀 대상은 다음 중 누구였는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 흡연자, 2) 정부의 정책(전매 사업 등), 3) 사회적 관습 및 분위기, 4) 다국적 기업(광고 및 판촉 활동). 이들 항목은 후에 흡연자(= 0)와 조직(= 1)의 더미변수로 구성하여 사용되었다.

(5)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아래의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흡연은 규제돼야 한다', '흡연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의 세 가지 항목으로 측정되었으며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alpha = .69, M = 5.11, SD = 1.21$).

(6) 통제변인

그 밖의 변인으로 나이, 교육 정도, 월평균 수입, 그리고 주거 형태(1인 가정을 "1"로 1인 이상의 가정을 "0"으로 입력)이 통제변인으로 포함되었다.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4. 분석 및 결과

1) 측정 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단일 항목으로 측정된 변수를 제외하고 위험 인식, 분노와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와 같은 잠재변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9개 측정 항목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적합도가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text{Chi-square} = 71.31, df = 32, p < .001; CFI = .98, TLI = .98, RMSEA = .06$). 또한, 각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들은 모두 $p < .0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서, 각 잠재변인별 측정 항목의 타당도가 확보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더불어,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크론바흐 알파값(α)을 통해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69에서 .92 사이를 보임으로써 측정 변인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을 볼 수 있었다(<표 1> 참조).

표 1. 측정 변인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인	항목	표준화 경로계수	신뢰도 (α)
위험 인식	위험 인식 1	.92	.95
	위험 인식 2	.95	
	위험 인식 3	.94	
분노	분노 1	.75	.80
	분노 2	.93	
	분노 3	.95	
	분노 4	.84	
흡연 규제 정책	흡연 규제 1	.76	.69
	흡연 규제 2	.60	
	흡연 규제 3	.61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표 2〉 참조), 위험 인식은 분노, 흡연 규제 정책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분노의 대상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더불어 위험 인식과 흡연 유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분노와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 행동도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 위험 인식은 분노의 대상이 정부나 담배 회사와 같은 조직일 때보다는 흡연자일 때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는 흡연 유무와 흡연 규제 정책 지지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분노의 대상과는 부적 관계를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 분노는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분노가 높을수록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분노는 분노의 대상이 조직일 때보다는 흡연자로 향할 때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유무는 분노의 대상과는 부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 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비흡연자일수록 분노의 대상이 조직보다는 흡연자에게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자보다는 비흡연자가 더 흡연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노의 대상과 흡연 규제 정책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분노의 대상이 조직보다는 흡연자로 향할 때 더 흡연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1	2	3	4
1. 위험 인식				
2. 분노	.32***			
3. 흡연 유무(흡연자 = 0)	.10	.15**		
4. 분노대상(흡연자 = 0)	-.17**	-.25***	-.15**	
4. 흡연 규제 정책 지지	.35***	.42***	.40***	-.32***

** $p < .01$, *** $p < .001$

주 1: 숫자는 표준화 상관계수임.

3) 가설 검증

위험 인식이 흡연 규제 정책에 지지에 미치는 효과가 분노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련의 위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분석에서 위험 인식, 분노, 그리고 흡연 규제 정책 지지에 관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이, 교육 정도, 월평균 수입, 그리고 주거 형태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통제된 상태에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1단계에는 통제변인으로 나이, 수입, 교육 정도, 그리고 가구 형태를 포함시켰고, 2단계에는 주 효과를, 3단계에는 이원 상호작용을 포함시켰으며, 4단계에는 삼원 상호작용을 포함시켰다.

(1) 이원 상호작용 효과: 위험과 분노가 흡연 규제 정책지지 행위에 미치는 영향

위험 인식이 흡연 규제 정책 지지에 미치는 효과가 분노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문제 1>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뒤, 위험 인식과 분노의 이원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이때,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영향을 고려하여 모든 변인에 대해 중앙화(centering)을 한 뒤 상호작용 항을 만들어 투입하였고, 예측변인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통제변인으로 나이, 교육정도, 수입, 그리고 가구 형태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인 중 가구 형태만이 유의미했다($\beta = .13, p < .01$). 다시 말해, 1인 이상의 가구에 주거하는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더 흡연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효과를 보면, 위험 인식($\beta = .23, p < .001$)이 높을수록, 그리고 분노($\beta = .33, p < .001$)가 높을수록 흡연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험 인식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도 지지되었다($\beta = .12, p < .05$).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노를 평균 중심화한 평균값에서 표준편차 값을 더하고 뺀 값을 기준으로 하여 집단을 구분하여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그 결과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분노의 정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위험 인식이 흡연 규제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분노가 낮은 집단에서는 위험 인식이 흡연 규제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가 낮을 때에는 위험 인식의 정도에 따라 흡연 규제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분노가 높을 때는 위험 인식 정도에 따라 흡연 규제 정

표 3. 위험 인식, 분노, 흡연자와 흡연 규제 정책 지지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흡연 규제 정책 지지		
		위험 × 분노	위험 × 분노 × 흡연 유무	위험 × 분노 × 대상
인구통계학적 변인	나이	.00	-.03	-.01
	교육 정도	-.01	-.05	-.01
	수입	-.05	.04	-.03
	1인 가구 (= 1)	-.13**	-.08	-.13*
주 효과	위험 인식	.23***	.28***	.37***
	분노	.33***	.28***	.21**
	흡연자(=0)		.35***	-.17**
이원 상호작용	위험 인식 × 분노	.12*	.21**	.13 [†]
	위험 인식 × 흡연자		-.09	-.20**
	분노 × 흡연자		.03	.08
삼원 상호작용	위험 × 분노 × 흡연자		-.16*	-.04
수정된 R ²		23.8*	33.6***	27.3

[†]p < .10, *p < .05, **p < .01, ***p < .001

주1) 숫자는 표준화 회귀 계수임.

표 4. 조절변인으로서의 분노에 대한 분석 결과

	분노	b	se	β	t
위험 인식	높은 집단	.32	.07	.34	4.50***
	낮은 집단	.12	.06	.12	1.8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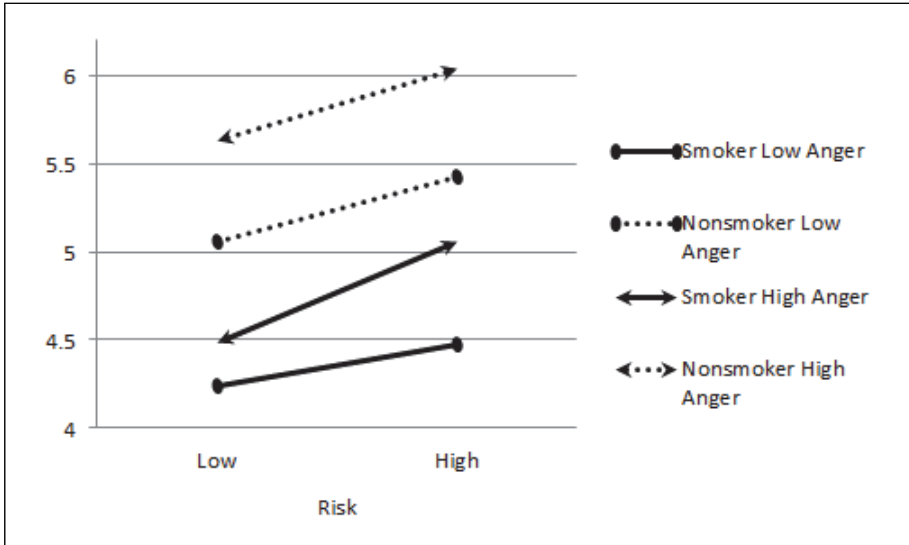
[†]p < .10 ***p < .001

책 지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분노가 높을 때는 위험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삼원 상호작용 효과: 흡연 유무

두 번째 연구가설은 위험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다르게 나

그림 1. 흡연 규제 정책 지지에 관한 위험 인식, 분노, 흡연 유무 삼원 상호작용 효과



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 효과를 보면,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beta = .28, p < .001$), 분노가 높을수록($\beta = .28, p < .001$), 비흡연자($\beta = .35, p < .001$)일수록 더 흡연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 상호작용 중 위험 인식×분노 상호작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 p < .01$). 마지막으로, 위험 인식×분노×흡연 유무 삼원 상호작용이 흡연 규제 정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8, p < .05$) (<그림 1> 참조).

위험 인식×분노 상호작용이 흡연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 상호작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흡연자의 경우 위험 인식×분노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beta = .28, p < .001$), 비흡연자의 경우 위험 인식×분노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beta = .01, p = n.s.$). 따라서 단순 상호작용 분석에 대한 단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노가 낮은 경우에는 위험 인식이 흡연 규제 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지만($\beta = .10, p = n.s.$), 분노가 높은 경우에는 위험 인식이 높아질수록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6, p < .001$).

(3) 삼원 상호작용 효과: 감정의 대상

세 번째 가설은 위험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가 감정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었다(〈표 3〉 참조). 계층적 회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1인 이상의 가구에 사는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더 흡연 규제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3, p < .05$). 주 효과를 보면,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beta = .37, p < .001$), 분노가 높을수록($\beta = .21, p < .01$), 그리고 분노의 대상이 정부나 담배 회사와 같은 조직일 때보다는 흡연자일 때($\beta = -.17, p < .01$) 흡연 규제 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 상호작용 중 위험 인식 \times 분노 대상 상호작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0, p < .01$). 다시 말해, 위험 인식이 흡연 규제 정책에 미치는 효과는 분노의 대상이 흡연자일 때는 유의미했지만, 분노의 대상이 정부나 담배 회사와 같은 조직을 향한 것일 때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위험 인식 \times 분노 \times 분노 대상 삼원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논의

간접흡연의 폐해를 강조하는 메시지는 종종 위험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분노와 같은 감정을 유발한다(Dillard & Nabi, 2006). 이렇게 유발된 위험 인식과 감정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람들의 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통해 유발된 위험 인식과 감정(특히, 분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흡연 규제 정책 지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나아가 위험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가 흡연 유무(예: 흡연자와 비흡연자)나 감정 대상(예: 흡연자와 정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 위험 인식이 흡연 규제 정책 지지 행위에 미치는 효과는 분노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통해 유발된 분노가 위험 인식과 결합해서 흡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나 분노가 높은 집단의 경우 간접흡연의 위험을 더 강하게 인식할수록 더 강하게 흡연을 규제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지된 위험과 흡연 규제 지지 행위와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주시시켜 준다. 다시 말해,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메시지는 응답자에게 흡연자의 담배 연기가 자신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나아가 이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강한 분노는 위험 인식과 결합해서 흡연을 강하게 규제하고자 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간접흡연과 같은 흡연 문제는 미디어가 주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흡연의 위험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갈 경우에 흡연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위험 정보에 더 많이 좌우되어서, 결과적으로 위험 인식뿐 아니라 분노와 같은 감정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반응은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공익 건강 캠페인 관계자들은 건강 문제를 접근할 때 위협적인 메시지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다각도에서 검토해 메시지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과 감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흡연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험과 감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흡연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위험 인식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흡연자의 경우 흡연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 행위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분노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위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1〉 참조). 반면, 흡연자의 경우, 분노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위험 인식이 높더라도 흡연 규제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분노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위험 인식이 높아질수록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위험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감정뿐 아니라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처한 특정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금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흡연 문제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가 분노의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측과는 달리 위험과 분노의 상호작용 효과가 분노의 대상이 흡연자나 또는 정부와 같은 조직이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좀 더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비록 위험 인식, 분노, 분노 대상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위험 인식과 분노 대상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위험 인식이 흡연 규제 정책에 미치는 효과가 분노의 대상이 흡연자일 때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분노의 대상이 흡연자일 때 위험 인식이 높아질수록 흡연 규제 정책에 대한 지지 행위가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흡연자에 대한 분노는 흡연이 아닌 흡연자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자칫 흡연자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낙인찍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반응은 흡연 문제를 흡연자 개인에게만 귀인하게 함으로써 흡연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분노를 느끼는 대상이 타인이나 자신에게 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ansen & Sassenberg, 2011). 예를 들어, 부정적 결과의 책임이 타인 또는 제3자에게 있다고 느낄 때에도 분노를 경험할 수 있지만,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느낄 때에도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Ellsworth & Tong, 2006). 게다가 분노의 대상에 따라 행동 경향성도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책임이 타인에게 있다고 판단할 때 경험하게 되는 분노는 책임자를 벌하거나 보복하고자 하는 행위를 보이는 반면, 자신에게 향한 분노는 자신의 잘못을 교정하거나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Tangney et al., 1996). 이들 연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분노 원인을 구분해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흡연자의 분노는 흡연자 자신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했다고 느낄 때 경험하는 분노이며 이러한 분노가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위, 즉 흡연 규제 정책 지지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비흡연자의 분노는 흡연자, 즉 타인의 담배 연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평가는 흡연자에 대한 응징, 즉 흡연 규제 정책 지지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감정의 대상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간접흡연 광고에 대한 반응을 실험 상황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설문 조사를 통해 간접흡연 광고에 대한 반응을 자기 보고 형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정교한 메시지 조작을 통한 실험 연구가 행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남성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감정적이라고 주장한다

(Brody & Hall, 1993; Fabes & Martin, 1991). 이 연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슬픔을 자주 느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분노를 표출하거나 경험한다고 설명한다(Briton & Hall, 1995; Fabes & Martin, 1991). 그러나 또 다른 연구들은 성별과 감정과의 연관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Leslie, 1997; Simon & Nah, 2004).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요인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위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위험을 분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위험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 특히 분노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건강 위험이 감지되고, 관련 정보가 처리되고, 거기서 생겨난 태도와 감정이 의사 결정 및 건강 행위로 이어지는 제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설득과 상호 이해를 통해 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나 조직은 위험 인식의 의미와 감정의 역할을 다각도로 이해함으로써 합리적 정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6). 금연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or.kr/mbs/nosmokeguide/subview.jsp?id=nosmokeguide_020403010000
- 유명순. (2009). 건강 위험 인식 연구: 보건학연구를 위한 함의. *보건행정학회지*, 19권 3호, 45~70.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London: Sage Publications.
- Batson, C. D. et al. (2007). Anger at unfairness: Is it moral outrag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6), 1272~1285.
- Bayer, R., & Stuber, J. (2006). Tobacco control, stigma, and public health: rethinking the relations. *Journal Information*, 96(1), 47~50.
- Brewer, N. T., Chapman, G. B., Gibbons, F. X., Gerrard, M., McCaul, K. D., & Weinstein, N. D. (2007).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perception and health behavior: the example of vaccination. *Health Psychology*, 26(2), 136~145.
- Briton, N., & Hall, J. (1995). Beliefs about female and male nonverbal communication. *Sex Roles*, 32, 79~90.
- Brody, L. R., & Hall, J. (1993). Gender and emotion. In M. Lewis & J.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pp. 447~460). New York: Guilford Press.
- Ellsworth, P. C. (1991). Some implications of cognitive appraisal theories of emotion. *International Review of Studies on Emotion*, 1, 143~161.
- Ellsworth, P. C., & Tong, E. M. (2006). What does it mean to be angry at yourself? Categories, appraisals, and the problem of language. *Emotion*, 6(4), 572~586.
- Fabes, R., & Martin, C. (1991). Gender and age stereotypes of emotionality.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 532~541.
- Farrelly, M. C., Niederdeppe, J., & Yarsevich, J. (2003). Youth tobacco prevention mass media campaigns: past, present, and future directions. *Tobacco Control*, 12(suppl 1), i35~i47.
- Ferrer, R. A., Portnoy, D. B., & Klein, W. M. P. (2012). Worry and risk perceptions as independent and interacting predictors of health protective behavior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8(4), 397~409.
- Fischhoff, B., Lichtenstein, S., Slovic, P., Derby, S. L., & Keeney, R. L. (1981). *Acceptable Risk*.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erard, M., Gibbons, F. X., & Bushman, B. J. (1996). Does perceived vulnerability to HIV motivate precautionary sexual behavior?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 Psychological Bulletin*, 119, 390~409.
- Haidt, J. (2003). The moral emotions.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pp. 852~87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nsen, N., & Sassenberg, K. (2011). Exploring the self~directed anger of the stigmatized: The interplay between perceived legitimacy and social identific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4(6), 807~818
- Iyer, A., & Leach, C. W. (2008). Emotion in inter-group relation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9(1), 86-125.
- Iyer, A., Schmader, T., & Lickel, B. (2007). Why individuals protest the perceived transgressions of their country: The role of anger, shame, and guil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4), 572~587.
- Izard, C. E. (1977). *Human Emotions*. New York: Plenum Press.
- Jasper, J. M. (2014). Constructing indignation: Anger dynamics in protest movements. *Emotion Review*, 6(3), 208~213.
- Johnson, B. T., & Eagly, A. H. (1989). Effects of involvement on persuas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6(2), 290~314.
- Kunda, Z. (1987). Motivated inference: Self-serving generation and evaluation of causal the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4), 636~647.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zarus, R. S. (1993). Coping theory and research: past, present, and future. *Psychosomatic Medicine*, 55(3), 234~247.
- Leach, C. W., Iyer, A., & Pedersen, A. (2006). Anger and guilt about ingroup advantage explain the willingness for political 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32(9), 1232~1245.
- Lerner, J. S., & Keltner, D. (2001). Fear, anger, and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46~159.
- Lerner, J. S., Gonzalez, R. M., Small, D. A., & Fischhoff, B. (2003). Effects of fear and anger on perceived risks of terrorism: A national field experiment. *Psychological Science*, 14(2), 144~150.
- Leslie, R. B. (1997). Gender and emotion: Beyond stereotypes. *Journal of Social Issues*, 53(2), 369~393.
- Liberman, A., & Chaiken, S. (1992). Defensive processing of personally relevant health messag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6), 669~679.
- Loewenstein, G., & Lerner, J. S. (2002). The role of affect in decision making.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pp. 619~64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oewenstein, G. F., Weber, E. U., Hsee, C. K., & Welch, N. (2001). Risk as feelings.

Psychological Bulletin, 127(2), 267~286.

- Moser, R. P., Mccauley, K., Peters, E., Nelson, W., & Marcus, S. E. (2007). Associations of perceived risk and worry with cancer health-protective action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1), 53~65.
- Nabi, R. L. (2003). Exploring the framing effects of emotion: Do discrete emotions differentially influence information accessibility, information seeking, and policy preference?. *Communication Research*, 30(2), 224~247.
- Öberg, M., Jaakkola, M. S., Woodward, A., Peruga, A., & Prüss-Ustün, A. (2011). Worldwide burden of disease from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A retrospective analysis of data from 192 countries. *The Lancet*, 377(9760), 139~146.
- Ortony, A., Clore, G. L., & Collins, A. (1988).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inson, B., Fischer, A. H., & Manstead, A. S. R. (2005). *Emotion in Social Relations: Cultural Group, and Interpersonal Processes*. New York: Psychology Press.
- Peters, E., & Slovic, P. (1996). The role of affect and worldviews as orienting dispositions in the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nuclear pow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16), 1427~1453.
- Petty, R. E., & Cacioppo, J. T. (1979). Issue involvement can increase or decrease persuasion by enhancing message-relevant cognit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915~1926.
- Rogers, C. R. (1975).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Counseling Psychologist*, 5(2), 2~9.
- Roseman, I. J. (1984). Cognitive determinant of emotion: A structural theory. In P. Shaver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 pp. 11~36). Beverly Hills, CA: Sage
- Roseman, I. J. (1991). Appraisal determinants of discrete emotions. *Cognition & Emotion*, 5(3), 161~200.
- Roseman, I. J. (1996). Appraisal determinants of emotions: Constructing a more accurate and comprehensive theory. *Cognition & Emotion*, 10, 241~278.
- Roseman, I. J., Wiest, C., & Swartz, T. S. (1994). Phenomenology, behaviors, and goals differentiate discrete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2), 206~221.
- Rosenstock, I. M. (197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Health Education Monographs*, 2, 354~386.
- Scherer, K. R. (1982). Emotion as a process: Function, origin and regulation. *Social Science Information*, 21(4/5), 555~570.
- Scherer, K. R. (1999). Appraisal theory. In T. Dal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pp.637~663). New York: John Wiley & Sons.

- Scherer, K. R. (2001). Emotional experience is subject to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 extrapolating to the future. *Social Science Information*, 40(1), 125~151.
- Shim, M., & You, M. (2015). Cognitive and affective risk perceptions toward food safety outbreaks: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news use and food consumption intention.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5(1), 48~64.
- Simon, A., F., & Jerit, J. (2007). Toward a theory relating political discourse, media, and public opin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7(2), 254~271.
-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 G. (2002). The affect heuristic. In T. Gilovich, D. Griffin, & D. Kahneman (Eds.), *Heuristics and Biases: The Psychology of Intuitive Judgments* (pp.397~42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lovic, P., Finucane, M. L., Peters, E., & MacGregor, D. G. (2004).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Risk Analysis*, 24(2), 311~322.
- Smith, C. A., & Ellsworth, P. C. (1985). Pattern of cognitive appraisal in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813~838.
- Smith, N., & Leiserowitz, A. (2014). The role of emotion in global warming policy support and opposition. *Risk Analysis*, 34(5), 937~948.
- Smith, E. R., Seger, C. R., & Mackie, D. M. (2007). Can emotions be truly group level? Evidence regarding four conceptual criteria.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3), 431~446.
- Tangney, J. P., Stuewig, J., & Mashek, D. J. (2007).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1), 345~372.
- Tangney, J., Wagner, P.E., Hill-Barlow, D., Marschall, D.E., & Gramzow, R. (1996). Relation of shame and guilt to constructive versus destructive responses to anger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97~809.
- Turner, J.C., Hogg, M.A., Oakes, P.J., Reicher, S.D., & Wetherell, M.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sation Theory*. Oxford, UK: Blackwell.
- van der Pligt, J. (1998). Perceived risk and vulnerability as predictors of precautionary behavior.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 1~14.
- Witte, K. (1992). Putting the fear back into fear appeals: The extended parallel process model. *Communication Monographs*, 59(4), 329~349.

논문투고일: 2016년 8월 23일

논문심사일: 2016년 9월 26일

게재확정일: 2016년 10월 7일

A b s t r a c t

The Interaction Effects of Risk and Anger on Supports for Smoking-Related Policies

Lee, Sunyoung

Research Professor, Graduate Program of Interaction Design, Hallym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cognitive and affective responses to risk and how they interact with each other in influencing health-related behaviors. Emphasizing an affective aspect of risk, recent research has suggested that analytic reasoning of risk cannot be effective unless it is guided by affects. In other words, emotional reactions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risk work in concert to guide reasoning and decision making. Thu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whether cognitive risk and anger interact in predicting individuals' support for smoking-related policies depending on their levels of anger when exposed to a secondhand smoking message. Using a web-based survey collected from 306 male smokers aged 20-49 years, the author found that cognitive risk and anger jointly affect respondents' support for smoking-related policies. Furthermore, the interaction effect of cognitive risk and anger on support for smoking-related policies was differed by smokers and nonsmoker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threat messages • secondhand smoking • affective responses
• the subject of emotion; the object of emotion